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진로적응성, 진로관여행동의 매개효과와 취업불안의 조절된 매개효과*

최재혁

카리스심리상담센터

홍혜영†

명지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진로적응모형을 바탕으로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진로적응성, 진로관여행동의 매개효과와 취업불안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데 있다.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3, 4학년 남, 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한 설문을 실시하여 수집된 343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된 우연기술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과 진로관여행동의 이중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진로적응성과 진로관여행동이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과 삶의 만족 사이를 완전매개하였다. 둘째, 연구모형의 조절된 매개 효과를 확인한 결과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과의 매개효과에 대한 취업불안의 조절효과는 계획된 우연기술과 취업불안의 상호작용항이 진로적응성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삶의 만족에 대해 계획된 우연기술의 향상과 진로적응성 그리고 진로관여행동의 중요함을 확인하여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진로적응모형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개인이 필요로 하는 차원에 맞추어 진로상담의 개입이 필요함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셋째, 상대적으로 취업불안을 높게 지각할 수 있는 대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취업불안을 진로적응모형에 적용하여 통합적인 측면을 확인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 대학생, 진로적응모형, 계획된 우연기술, 진로적응성, 진로관여행동, 삶의 만족, 취업불안

* 본 원고는 최재혁(2022)의 박사학위논문을 일부 수정 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홍혜영, 명지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명지대학교 국제관 4715, Tel: (02)300-0899, E-mail: hyhong@mju.ac.kr

Copyright ©2023, Korean Association of School Psycholog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대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적응은 직업 세계로의 성공적인 진로전환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Super(1990)는 성인의 진로발달은 청소년기의 성숙적 발달과업이 적용되지 않는 사실에 직면하여, 성인에게 있어 성숙적 요소를 제거한 ‘진로적응성’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진로적응성의 개념이 진로적응성에 대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성격 특성, 사회적 능력, 행동 등의 다양한 개념으로 연구되고 있어 혼돈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진로적응성을 적응의 과정으로 구체화하여 적응준비, 적응자원, 적응반응, 적응결과의 순차적인 과정으로서 이론적 틀인 진로적응모형을 제시하였다(Savickas & Porfeli, 2012).

적응준비는 진로환경 변화로 발생하는 사건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유연성과 변화하려는 개인적 특성을 말하며(신윤정 외, 2018; Savickas, 2013),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심리적 특질로서 성격적 변인들과 인지적 유연성과 관련 있고, 진로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도와 의지를 포함하여 지속적인 심리적 특성이 다(Rudolph et al., 2017; Savickas et al., 2012). 적응자원은 자기 조절적 힘 또는 역량으로 사람-환경의 상호작용인 개인의 심리 사회적 자원으로 진로적응성을 말한다. 진로적응성은 관심, 통제, 호기심, 자신감의 4개 차원으로 구성된다(Savickas et al., 2012).

적응반응은 개인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적인 실제 행동(Savickas et al., 2012)뿐만 아니라 신념도 포함하며(Rudolph et al., 2017),

진로장면에서 정보를 탐색하고, 정보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결정에 따라 전념할 수 있는 행동을 하며, 적극적인 역할 관리 및 미래향적인 과정을 수행한다. 이러한 적응반응 차원의 변인으로는 진로계획, 진로탐색,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등이 있다.

적응결과는 적응행동의 성과로, 진로적응 후에 얻어지는 개인과 환경의 적합성에 의한 성공적인 결과로 나타나는데(Savickas et al., 2012), 즉, 개인이 환경에 대한 자신의 요구를 타협과 통합을 통해 균형을 이룬 상태를 말한다. 이 적응결과 차원의 변인으로는 진로만족, 삶의 만족, 조직 몰입, 승진, 진로전환 등이 있다(Johnston, 2018).

진로적응모형은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도 타당성을 갖도록 제안되었으나, 진로적응성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역량으로 문화나 환경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아 다양한 문화권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Savickas et al., 2012).

먼저 적응준비 차원의 계획된 우연기술을 살펴보면 우연적 사건이란 계획되지 않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였거나, 또는 상황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의도하지 않았던 일들과 관련된 사건을 의미한다(Rojewski, 1999). 현대사회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의 발생이 빈번하고 따라서 진로결정에 있어서도 예기치 않았던 사건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Salomone & Slaney, 1981). Michell 등(1999)은 우연을 기회로 만드는 것이 변화하는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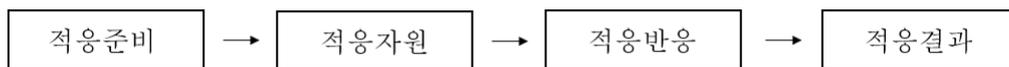


그림 1. 진로적응모형(Savickas, 2013)

세계에서 대처할 수 있는 적극적 방법이라고 하였다. ‘계획된 우연기술’이란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예기치 않은 사건이 진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Krumboltz 등(2013)은 비자발적 진로전환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우연학습이론을 통한 진로상담의 근거를 주장하였다. 첫째,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현대의 직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직업이 적합하게 변화할 것을 예상함으로써, 내담자가 유연성과 적응성을 키워 나가며 새로운 기회를 맞이했을 때 적응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 둘째, 개인이 주기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직업과 성격을 새롭게 생각해 보게 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변화에 개방적이 되도록 한다. 셋째, 계획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자신에게 이익되는 탐색 행동에 도전하도록 돕는다. 넷째, 진로상담은 개인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실생활에서 개인이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진행된 진로상담은 내담자에게 변화하는 세계를 이해하도록 돕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즉, 진로에 대해 구상을 하는 것은 개인이 예측하지 않은 사건에서 많은 결정을 하도록 요구되는 과정이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정상적이며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계획된 우연이론은 변화하는 직업 세계 속에서 우연적인 요소를 인정하고, 개인의 삶에서 이러한 우연적 사건들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한다(Krumboltz et al., 2013).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직업성취과정에 미치는 우연 혹은 기회의 영향(손은령, 2018)과 계획된 우연기술이 개인의 진로적응성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김미정, 김영희, 2018)가 있다. 김현미(2020)의 연구에서는 대학

생의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적응성의 관계를 계획된 우연기술이 매개한다고 하였고, 서성식(2018)은 계획된 우연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으며, 오현주(2013)는 계획된 우연이 직업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결과들은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적응성과 진로관여행동,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최근 긍정심리학의 대두로 인간의 행복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긍정심리학에서 말하는 행복의 구성요소는 즐거운 삶, 몰입하는 삶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말한다(Seligman, 2004). 의미 있는 삶이란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돕는 데서 오는 만족감과 행복을 말한다(권석만, 2008). 삶의 만족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삶의 질은 개인의 실제 경험에 존재하는 것이며(Campbell et al., 1976), 개인의 삶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포함하는 것이다(Lent & Brown, 2008). Lehman(1983)은 삶의 만족 개념은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는가를 자신이 스스로 인지하고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 정의했으며, 자신의 생애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효율적으로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해서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정의 내리고 있다(Kalish, 1976).

적응결과 차원의 변인인 삶의 만족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연주(2011)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삶의 만족도 연구에서 삶의 만족을 개인이 현재 상황에 대하여 갖는 만족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살아온 자신의 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감이라고 표현하였다. 또한, 박기현(2018)은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는 진로 만족과 진로준비행동이 대학생의 삶의 만족을 예측하는 변수로 확인하였으며, 정미예와 조남근(2015)의 연구에서는 진로적응성이 삶의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삶의 만족에 진로와 관련된 변인이 영향을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Super(1953)의 기존 진로발달이론에서는 진로 선택을 완료하는 발달 과업수행 이후에는 더 이상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후 ‘전생애주기-생애공간(Life-span, life-space: Super, 1990)’ 이론을 통하여 진로를 선택한 이후에도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을 설명하기 위해 아동이나 청소년과는 구별되는 진로에 대한 재순환과 재탐색이 많은 성인기를 설명하기 위해 ‘진로성숙(career maturity)을 대신하는 진로적응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Super et al., 1981). 이는 진로적응 모형의 적응자원에 해당한다. Savickas(2005)는 더 넓은 발달단계를 포함하는 진로적응성의 구성요인으로, 관심(Concern), 통제(Control), 호기심(Curiosity), 자신감(Confidence)의 4가지 차원으로 개념화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Rossier(2015)는 진로 개입은 평생동안 가능하고, 전체적이며, 다양한 역할과 정체성을 고려하고, 상황적 요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며, 진로적응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Ginevra 등(2018)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진로적응성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진로적응성은 대학생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적응행동 차원의 변인인 진로관여행동은 결과적인 행동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되는 과

정으로, 자신과 직업 세계에 대하여 이해를 높이고,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자신의 직업과 관련하여 선택의 폭을 넓히는 정보와 경험을 쌓는 행동을 의미한다(Cox, 2008). 또한, Cox 등(2015)은 진로관여행동은 적응적인 진로결정을 위하여 자신과 직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인 탐색, 그리고 개인 및 세상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충분한 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하는 활동 전반을 포함하는 강화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탐색이 일반적인 진로 탐색의 과정이라면, 강화는 개인이 자신과 세상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지향하는 포괄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진로관여행동은 행동적 차원이라는 면에서 진로준비행동(김봉환, 1997), 진로탐색행동(Stumpf, Colarelli & Hartman, 1983), 취업준비행동(이제경, 2004) 등과 공통점을 갖지만(정미나, 양은주, 2012), 이러한 변인들은 진로 관련 행동의 목적이 구체적인 직업을 결정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진로의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행동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지만 진로관여행동은 이를 넘어 포괄적이고 유연성을 갖춘 개념이며, 기회지향적인 행동 변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나래, 2013).

이상의 내용을 살펴볼 때, 진로관여행동이 높은 사람들은 행동을 통해 인생의 기회가 도움이 될 것을 알기에, 흥미를 느끼는 것을 많이 경험하며 이를 추구한다. 이러한 행동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어 진로관여행동은 진로적응성과 함께 삶의 만족에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변인임을 예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진로적응모형에 대한 조절변인으로 설정한 취업불안을 살펴보면, 조규판(2008)은 취업을 앞둔 취업 준비과정에서 느끼

는 사람들의 불안을 취업불안이라 하였고, 불안이론을 바탕으로 취업불안을 유발상황, 원인, 상태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 취업불안척도를 개발하였다. 첫째, 취업불안 유발상황은 취업을 하지 못해 고민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장면이나 상황에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고, 둘째, 취업불안의 원인은 자신의 취업 준비 상황과 같은 내적 요인과 고용환경과 같은 외적 요인으로 개인이 지각한 인지적 요인으로 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취업불안 상태는 취업불안을 경험할 때 나타나는 심리적, 신체적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며, 세 요인 중 핵심변인으로 취업불안을 겪는 상태의 정도로 유발상황과 유발원인에 의해 초래된다고 볼 수 있다.

육정원과 김봉환(2017)은 대학생의 취업불안과 진로적응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취업불안은 진로적응성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음이 나타났다. 이것은 고학년 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걱정으로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음을 보여준다(공운엽, 최현성, 2021).

국내에서는 조규관(2008)의 취업불안 척도 개발을 시작으로 취업 준비과정에서 경험하는 취업불안에 대한 연구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

는 실정이다. 취업불안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강인혜, 유금란, 2020), 진로성숙도(소용준, 박준성, 2016), 취업스트레스(조미경 외, 2013) 등과 같은 요인들과의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취업불안을 연구 주제로 수행한 연구는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조규관, 2008).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획된 우연기술은 진로적응성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고, 취업불안은 학업에서 직업세계로 전환하는 취업 준비 시기에 대학생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불안으로 직업이나 직무환경에 대한 적응을 어렵게 하며, 취업에 직면한 대학생일지라도 그들이 지각하는 불안의 수준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부적 영향을 미치며 조절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은 첫째,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 진로관여행동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둘째,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 진로적응성, 진로관여행동,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과 취업불안은 조절된 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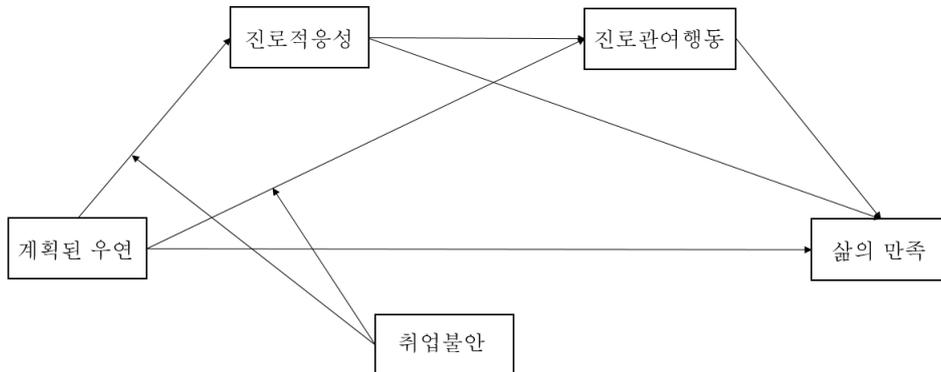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연구모형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국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3, 4학년 남, 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google 설문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 유효한 응답은 총 399명이었고 그 중 획일적인 응답 또는 무작위 응답 등 연구목적에 사용하기에 불성실한 응답을 한 56명을 제외하고 343명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측정도구

계획된 우연기술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계획된 우연기술척도는 Krumboltz(1999)의 계획된 우연이론을 근거로 김보람(2012)이 개발한 ‘계획된 우연 척도’를 사용하였다. ‘계획된 우연기술 척도(Planned Happenstance Career Inventory; PHCI)’는 총 25문항으로 호기심, 인내심, 유연성, 낙관성과 위험감수의 4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보람(2012)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79이고, 본 연구에서의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898로 나타났다.

진로적응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진로적응척도는 Savickas 등(2012)이 개발한 CAAS(Career Adaptability Scale) 척도를 Tak(2012)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표 1. 연구대상자 인구통계학적 분포

| 구분 | | 인원수 (명) | 백분율 (%) | 구분 | | 인원수 (명) | 백분율 (%) |
|----|-------|------------|------------|-----|-----|------------|------------|
| 성별 | 남학생 | 114 | 33.2 | 전공 | 기타 | 9 | 2.6 |
| | 여학생 | 229 | 66.8 | | 합계 | 343 | 100 |
| | 전체 | 343 | 100 | 서울 | 138 | 40.2 | |
| 학년 | 3학년 | 170 | 49.5 | 경기 | 62 | 18.1 | |
| | 4학년 | 156 | 45.5 | 충남 | 58 | 16.9 | |
| | 기타 | 17 | 5.0 | 충북 | 11 | 3.2 | |
| | 전체 | 343 | 100 | 대학 | 경남 | 18 | 5.2 |
| 전공 | 인문계열 | 93 | 27.1 | 소재지 | 경북 | 25 | 7.4 |
| | 사회과학 | 95 | 27.7 | 전남 | 17 | 5.0 | |
| | 자연계열 | 58 | 16.9 | 전북 | 7 | 2.0 | |
| | 공학 | 49 | 14.3 | 기타 | 7 | 2.0 | |
| | 예체능계열 | 39 | 11.4 | 합계 | 343 | 100 | |

척도를 정지은과 정철영(2015)이 개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진로관심, 진로통제, 진로호기심, 진로자신감의 4개 하위 요인의 24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정지은과 정철영(2015)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3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16이었다.

진로관여행동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진로관여행동 척도는 Cox(2008)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진로 관여행동(Occupational Engagement Scale For Students; OES-S) 척도를 정미나(2011)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단일요인으로 14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정미나(2011)의 연구에서 보고된 신뢰도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42이었다.

삶의 만족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Diener 등(1985)이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한 Satisfaction With Life Scale(SWLS)을 안신능(2006)이 번안한 삶에 대한 만족 척도를 사용하였다. 삶의 만족 척도는 전반적인 개인의 생활을 만족하는 상태를 측정하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7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안신능(2006)의 연구에서 보고된 신뢰도는 .82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삶의 만족의 신뢰도는 .828으로 나타났다.

취업불안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취업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조규관(2008)이 개발한 취업불안 척도를 사용하였다. 취업불안 척도는 대학생들

이 겪고 있는 취업에 대한 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3개 구성요인 총 2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응양식은 Likert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조규관(2008)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56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30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1 및 Process macro 4.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수집된 자료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합치도(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계획된 우연기술, 진로적응성, 진로관여행동, 삶의 만족, 취업불안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각 변인 간의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변인 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Process macro 모델 6번을 사용하여 계획된 우연기술, 진로적응성, 진로관여행동, 삶의 만족 간의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다섯째, Process macro 모델 85번을 사용하여 계획된 우연기술과 삶의 만족 관계에서 진로적응성과 취업불안의 조절된 매개효과와 계획된 우연기술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진로관여행동과 취업불안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여섯째, 매개모형과 매개된 조절 모형의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5,000개 표본을 재추출한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통하여 각 변인 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결 과

연구대상 변인의 기술통계

연구대상 변인의 특성을 보면 계획된 우연기술의 평균은 3.65(SD=.512)이었고, 진로적응성은 평균은 3.82(SD=.544) 이었고, 진로관여행동의 평균은 3.55(SD=.605), 삶의 만족의 평균은 4.24(SD=1.18) 이었다. 또한, 취업불안의 평균은 3.40(SD=.656)이었고 모두 중간 이상의 점수 분포를 보였다. 또한, 왜도는 -.319~.230의 분포로 나타났으며, 첨도는 -.374~1.139의 분포로 나타나 왜도와 첨도가 각각 ±2, ±7을 넘지 않기 때문에 정상성의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변인 간 상관관계

관찰 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였다. 변인 간 상관관계의 분석 내용을 표 2에 제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과 진로관여행동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Hayes가 제안한 Process macro의 6번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2. 변인 간 상관

| 구분 | 변인 | | | |
|----------|----------------------|----------------------|----------------------|--------|
| | 삶의 만족 | 계획된 우연기술 | 진로적응성 | 진로관여행동 |
| 삶의 만족 | - | | | |
| 계획된 우연기술 | .593 ^{***} | - | | |
| 진로적응성 | .665 ^{***} | .788 ^{***} | - | |
| 진로관여행동 | .647 ^{***} | .677 ^{***} | .731 ^{***} | - |
| 취업불안 | -.259 ^{***} | -.176 ^{***} | -.187 ^{***} | -.064 |

* p< .05, ** p< .01, *** p< .001. 음영은 유의하지 않은 상관관계를 표시함 (p>.05)

표 3. 연구 변인의 이중매개효과 분석

| 종속변인 | 독립변인 | B | SE | t | F | R ² |
|--------|----------|-------|-------|-----------------------|------------------------|----------------|
| 삶의 만족 | 계획된 우연기술 | 1.316 | .097 | 13.613 ^{***} | 185.314 ^{***} | .352 |
| | 진로적응성 | .831 | .035 | 23.643 ^{***} | 559.000 ^{***} | .621 |
| 진로관여행동 | 계획된 우연기술 | .305 | .067 | 4.562 ^{***} | 217.573 ^{***} | .561 |
| | 진로적응성 | .566 | .0634 | 8.934 ^{***} | | |
| 삶의 만족 | 계획된 우연기술 | .212 | .142 | 1.490 | | |
| | 진로적응성 | .742 | .146 | 5.088 ^{***} | 113.747 ^{***} | .502 |
| | 진로관여행동 | .631 | .112 | 5.620 ^{***} | | |

*** p<.001

첫째, 삶의 만족에 대한 계획된 우연기술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F=185.314, p<.001$), 이 모형의 설명력은 35.2%로 나타났다. 독립변인인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은 삶의 만족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1.316, p<.001$) 계획된 우연기술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진로적응성에 대한 계획된 우연기술의 회귀모형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F=559.000, p<.001$), 설명력은 62.1%로 나타났다. 계획된 우연기술은 진로적응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831, p<.001$) 계획된 우연기술이 높을수록 진로적응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진로관여행동에 대한 진로적응성과 계획된 우연기술의 회귀모형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F=217.573, p<.001$), 전체 모형에 대해 56.1%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계획된 우연기술은 진로관여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305, p<.001$), 진로적응성 또한 진로관여행동에 정적 영향을($B=.566, p<.001$)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적응성이 증가할수록 진로관여행동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삶의 만족에 대한 진로적응성, 진로관여행동의 회귀모형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F=113.747, p<.001$), 전체 모형에 대해 50.2%에 설명력을 나타냈다. 계획된 우연기술은 삶의 만족에 정적 영향을($B=.212, p>.05$)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진로적응성은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B=.742, p<.001$), 진로관여행동 또한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B=.631, p<.001$)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적응성, 진로관여행동이 각각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수인 계획된 우연기술이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변수인 진로적응성과 진로관여행동을 투입하기 전과 투입한 후에 영향력을 확인하였을 때 매개변수를 투입하기 전의 영향력($B=1.316, p<.001$)이 매개변수를 투입한 후 보다 그 영향력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B=.212, p>.05$), 또한 그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된 우연기술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과 진로관여행동의 이중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을 지정하고

표 4.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 경로 | 총효과 | 직접효과 | 간접효과 | S.E. | 95% confidence interval | |
|--------------------------------|-------|------|------|------|-------------------------|-----------|
| | | | | | Boot LLCI | Boot ULCI |
| 계획된 우연기술→ 진로적응성→삶의 만족 | | | .616 | .132 | .358 | .876 |
| 계획된 우연기술→ 진로관여행동→삶의 만족 | 1.316 | .212 | .162 | .063 | .084 | .332 |
| 계획된우연기술→ 진로적응성→진로관여행동→삶의 만족 | | | .297 | .072 | .166 | .447 |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하여 효과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의 검증결과는 표 4와 같다.

개별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결과 진로적응성의 매개경로(계획된우연기술→진로적응성→삶의만족)는 간접효과 크기 .616(.358~.876), 진로관여행동의 매개경로(계획된 우연기술→진로적응성→삶의 만족)는 간접효과 크기 .162(.084~.332)로 신뢰구간 95%에서 0의 값이 존재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진로적응성과 진로관여행동을 투입한 매개경로(계획된 우연기술→진로적응성→진로관여행동→삶의 만족)인 이중매개효과 크기 검증결과도 간접효과 크기 .297(.166~.447)로 신뢰구간 95%에서 0의 값이 존재하지 않아 이중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취업불안의 조절된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과 진로관여행동의 매개효과를 취업불안이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의 모델 83번을 이용하였고, 부트스트래핑 5,000회 지정 및 신뢰구간 95%를 설정하였다. 취업불안의 조절효과의 크기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계획된 우연기술은 진로적응성에 정적 영향을 미쳤고($B=1.106, p<.001$), 계획된 우연기술과 취업불안의 상호작용항은 진로적응성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B=-.085, p<.001$) 미치고 있어 조절효과가 있었다. 이는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이 증가하면 진로적응성이 증가하고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적응성을 거

표 5. 취업불안의 조절효과

| 종속변인 | 독립변인 | B | SE | t | F | R ² |
|-------|-------------|-------|---------|----------|------------|----------------|
| 진로적응성 | 계획된 우연기술(a) | 1.106 | .148*** | 7.495*** | | |
| | 취업불안(b) | .297 | .172 | 1.724 | 190.615*** | .628 |
| | a×b | -.085 | .043 | -1.990* | | |

* $p<.05$,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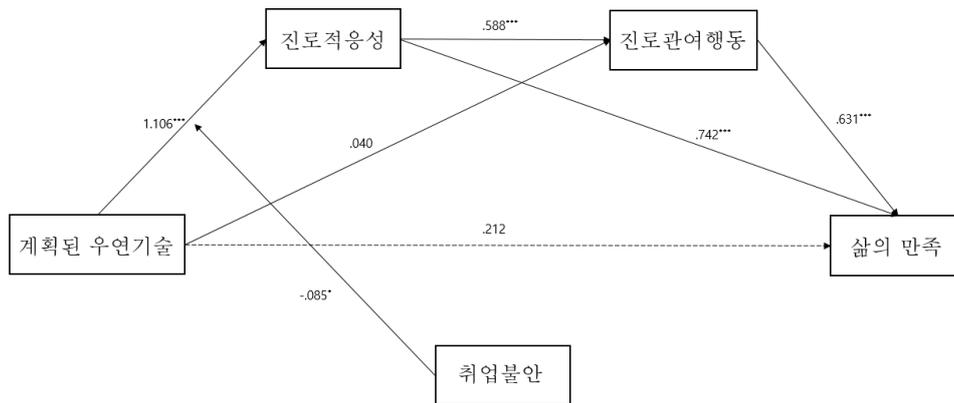


그림 3. 최종결과

표 6. 조절된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 경로 | B | BootsS.E. | 95% confidence interval | |
|--------------------------|----------|-----------|-------------------------|-----------|
| | | | Boot LLCI | Boot ULCI |
| 계획된 우연기술→ 진로적응성→삶의 만족 | -.063*** | .036 | -1.370 | -.0002 |

*** $p < .001$

쳐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취업불안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최종 결과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계획된 우연기술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과 진로관여행동의 매개효과를 취업불안이 조절하는 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을 지정하고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하여 효과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와의 검증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조절효과의 유의성 검증결과 진로적응성의 매개경로(계획된우연기술→진로적응성→삶의 만족)는 효과 크기는 $-.063(-1.370 \sim -.002)$ 로 조절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조절된 매개효과로서 취업불안이 1 증가하면 $-.063$ 의 매개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Savickas(2005)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로적응모형이 국내에서도 적용 가능한지를 확인하고자 계획된 우연기술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적응성과 진로관여행동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계획된 우연기술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적응성과 진로관여행동

의 매개효과에 대하여 취업불안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 대한 결론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삶의 만족에 대해 계획된 우연기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이 있었으며, 진로적응성에 대한 계획된 우연기술의 영향력 또한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이 있었다. 이는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적응성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박윤희, 2020)와 계획된 우연역량이 발달할수록 진로적응성이 높아진다고 보고한 김지하(2021)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Kim 등(2018)의 계획된 우연기술이 높을수록 삶에 적응을 더 잘한다는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적응성과 삶의 만족을 높이며, 또한 진로적응성을 통하여 삶의 만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로상담 개입을 통하여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의 향상과 더불어 진로적응성을 키우는 것이 대학생의 삶의 만족 증진을 위하여 중요함을 시사한다.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진로관여행동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관여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곽윤지(2017)의 연구와 Mitchell 등(2005)의 연구에서 보고된 계획된 우연기술이 적극적인 진로탐색을 촉진한다는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진로적응성이 진로관여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한다는 Rudolph 등(2017)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는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관여행동을 향상시키며 이를 통하여 삶의 만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대학생의 진로관여행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진로관여행동에 대하여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적응성의 영향력을 확인한 결과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적응성은 진로관여행동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계획된 우연기술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과 진로관여행동의 이중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계획된 우연기술은 진로적응성을 통하여 진로관여행동의 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하며, 진로적응성은 진로관여행동을 촉진하여 삶의 만족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진로적응성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 속에서 만족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을 말하며, 목표지향적인 행동 즉 진로관여행동이 진로만족과 삶의 만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계획된 우연기술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과 진로관여행동의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함에 있어 매개변수인 진로적응성과 진로관여행동을 투입하기 전에 계획된 우연기술의 삶에 만족에 대한 영향력보다 매개변수를 투입한 후의 영향력이 작아졌으며, 그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진로적응성과 진로관여행동이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과 삶의 만족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내에서 진로적응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 것으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진로지도 및 상담 시 진로적응모형을 적용한 순차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내에서 진로적응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 것으로, 계획된 우연기술이 높으면 진로적응성을 높이고 진로적응성이 진로관여행동을 높이며, 진로관여행동이 삶의 만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대학생의 삶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적 특성 변인인 계획된 우연기술과 개인의 자원인 진로적응성을 향상시키고, 실제적인 적응반응 행동인 진로관여행동을 촉진시키는 개입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진로지도 및 상담 개입 시 진로적응모형에 입각하여 복잡하고 생소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개인적 특성을 확인하여 적응준비 차원을 향상시키고, 적응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적응자원을 증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진로와 관련한 실제적인 행동에 대한 동기를 강화하여 적응반응을 유발하며, 이러한 적응반응의 성과로 나타나는 적응결과를 위한 적절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연구모형의 조절된 매개효과 결과를 확인한 결과 계획된 우연기술과 취업불안의 상호작용항이 진로적응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사회적 불안이 진로적응성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취업불안과 진로적응성이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음을 밝힌 육정원 등(2017)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계

획된 우연기술이 취업불안에 대한 문제에 대한 대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김보영 등(2016)의 연구결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계획된 우연기술과 취업불안의 상호작용은 취업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고학년 대학생일지라도 그 개개인이 지각하는 정서적 불편감이나 긴장의 수준은 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어 취업불안의 수준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계획된 우연기술이 취업불안을 낮출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고 더 나은 진로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김보영 등(2016)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진로교육 시 취업만이 대학 졸업 후에 유일한 진로 방향성이라는 전통적 사고가 아직 존재하고 있어 취업불안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주장한 임진혁(2015)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진로교육 시 취업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심리상담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등 사회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긍정적인 자아감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동기를 강화하여 계획된 우연기술을 높이고, 진로적응성을 향상시키는 진로상담 개입과 더불어 취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들의 취업불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인이 지각하는 심리적 불안상태를 잘 관리하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며, 불안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상담 기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취업불안의 개인적 차이에 따라 진로적응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적응성을 높이는 관계에

대하여 취업불안이 부적 영향을 미치며 조절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의 취업불안에 대한 개입의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취업불안은 대학생들의 취업 준비나 활동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여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요구에 대처하는 준비도와 취업 관련 행동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어, 취업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개입과 더불어 개개인의 창조성을 강조하는 진로교육과 진로상담의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대학생들의 취업불안에 대한 이해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생들이 취업과 관련하여 지각하는 불안을 진로전환에 있어서의 변화의 시작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며, 적절한 불안상태가 진로관여를 위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진로관여행동을 촉진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다양한 진로 대안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구성주의 이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진로적응모형의 국내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여 진로적응모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개인이 필요로 하는 차원에 맞추어 진로상담의 개입이 필요함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과 삶의 만족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들의 관계를 통해 이를 확인한 것으로서 의의가 있다. 셋째, 상대적으로 취업불안을 높게 지각할 수 있는 대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진로적응모형에 대하여 취업불안의 조절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취업불안을 진로적응모형에 적용하여 통합적인 측면을 확인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온라인만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조사에 응답하는데 있어 취업불안에 대하여 실제보다 과장되거나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인해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표본 수집에 있어서 보다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결과에 타당성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진로구성주의 이론에서 언급하는 진로적응모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진로적응반응 변인으로 진로관여행동을 설정하였으나, 기존과는 다른 현대의 변화되는 직업환경에서는 적응반응의 변인으로 더욱 다양한 변인들이 고려될 수 있어 더욱 다양한 대상과 다양한 적응반응 변인들을 통한 반복적인 연구를 통해 적응반응 변인들 간의 관계와 영향력을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취업불안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상대적으로 취업불안을 많이 가진다고 여겨지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3, 4학년 학생들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진로적응모형의 적용에 있어서 모든 대상에 대하여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연구의 대상을 다양한 대상으로 확장시켜 추가적인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인혜, 유금란 (2020).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취업불안의 관계에서 지각된 진로장벽을 통한 삶의 의미의 조절된 매

개효과. *진로교육연구*, 33(1), 21-42.

곽윤지 (2017). 중학생의 진로포부와 진로탐색행동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 기술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석만 (2008). *긍정 심리학*. 서울: 학지사.

김나래 (2013). 대학생의 내적통제성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관여행동의 매개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미정, 김영희 (2018). 전문대학생이 인식한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적응성과의 관계에서 진로신념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1), 495-523.

김보람 (201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career-related planned happenstance scale (CPHS).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보영, 양나연, 양혁, 양준영, 정성훈, 이상민 (2016). 계획된 우연 이론에 기반한 성격 5요인과 우연 기술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2), 491-508.

김봉환 (1997). *大學生の 進路決定水準과 進路準備行動의 發達 및 二次元的 類型化*.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연주 (2011). 대학생의 자기불일치와 자존감, 삶의 만족도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현미 (2020).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율성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11(1), 115-127.

박기현 (2018). 무용학과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삶의 만족과의 관계: 진로준비행동과 진로만족의 조절된 매개효과. *예술교육연구*, 16(4), 207-219.

- 박윤희 (2020).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 적응성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의 매개효과. *디지털융합연구*, 18(5), 89-98.
- 서성식 (2018).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계획된 우연기술에 의해 조절된 진로 불안의 매개효과.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손은령 (2018). 우연과 계획의 조우 - 진로상담의 새로운 담론. *相談과 指導*, 53(-), 93-112.
- 신윤정, 이은설 (2018). 대학생의 조절초점과 진로결정효능감 간의 관계 내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 적응의 진로구성모형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31(2), 91-112.
- 안신능 (2006). 자기 개념에 따른 자기 불일치와 삶의 만족도의 인과적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현주 (2013). 작업자의 계획된 우연과 기회전략이 직업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육정원, 김봉환 (2017). 대학생의 취업불안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진로탐색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8(3), 111-128.
- 이제경 (2004). *韓國大學生의 就業準備行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미나, 양은주 (2012).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 유형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진로관여도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9(9), 47-70.
- 정미예, 조남근 (2015). 대학생의 진로적응성과 긍정적 정서, 사회적 지지 및 삶의 만족의 구조적 분석. *상담학연구*, 16(2), 179-193.
- 조규판 (2008). 취업불안척도의 개발 및 타당도 연구. *教育學研究*, 46(2), 53-75.
- 조미경, 최은지, 이지원, 이유나, 채지영 (2013).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외모와 취업 스트레스 및 취업불안과의 관계. *간호학의 지평*, 10(2), 141-150.
- Brown, G. S., & Strange, C. (1981). The relationship of academic major and career choice status to anxiety among college fresh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9(3), 328-334.
-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s*. Russell Sage Foundation.
- Cox, D. W. (2008). *The Operationalization of Occupational Engagement and Validation of the Occupational Engagement Scale for Students*. university of Kansas.
- Cox, D. W., Krieshok, T. S., Bjornsen, A. L., & Zumbo, B. D. (2015). Occupational engagement scale-student: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3(1), 107-116.
- Johnston, C. S. (2018). A systematic review of the career adaptability literature and future outlook.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6(1), 3-30.
- Kalish, R. A. (1976). LATE ADULTHOOD: Perspectives on human development. *AJN the American Journal of Nursing*, 76(1), 82p
- Krumboltz, J. D., Foley, P. F., & Cotter, E. W. (2013). Applying the happenstance learning theory to involuntary career transition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61(1), 15-26.
- Lehman, A. F. (1983). The well-being of chronic mental patients: Assessing their quality of life.

-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0(4), 369-373.
- Mitchell, K. E., Levin, S., & Krumboltz, J. D. (1999). Planned happenstance: Constructing unexpected career opportunitie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7(2), 115-124.
- Mitchell, L. K., & Krumboltz, J. D. (1984). Research on human decision making: Implications for career decision making and counseling.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238-280.
- Rojewski, J. W. (1999). The role of chance in the career development of individuals with learning disabilities. *Learning Disability Quarterly*, 22(4), 267-278.
- Rossier, J. (2015). *Career adaptability and life designing*. Handbook of life design: From practice to theory and from theory to practice, 153-167.
- Rudolph, C. W., Lavigne, K. N., & Zacher, H. (2017). Career adaptability: A meta-analysis of relationships with measures of adaptivity, adapting responses, and adaptation resul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8, 17-34.
- Salomone, P. R., & Slaney, R. B. (1981). The influence of chance and contingency factors on the vocational choice process of nonprofessional worker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9(1), 25-35.
- Savickas, M. L. (2005). The theory and practice of career construction.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1, 42-70.
- Savickas, M. L. (2013). Career construction theory and practice.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2, 144-180.
- Savickas, M. L., & Porfeli, E. J. (2012). Career adapt-abilities scale: Construction, reliability, and measurement equivalence across 13 countri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0(3), 661-673.
- Seligman, M. E. (2004). *Authentic happiness: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30-44. Simon and Schuster.
- Seligman, M. E., & Csikszentmihalyi, M. (2014).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Flow and the foundations of positive psychology*, 279-298. Springer.
- Stumpf, S. A., Colarelli, S. M., & Hartman, K. (1983). Development of the career exploration survey (C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2), 191-226.
- Super, D. E. (1953).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8(5), 185-190.
- Super, D. E. (199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6(3), 282-298.
- Super, D. E., & Knasel, E. G. (1981). Career development in adulthood: Some theoretical problems and a possible solution. *British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ling*, 9(2), 194-201.

원고접수일 : 2023. 03. 06.

수정원고접수일 : 2023. 03. 22.

최종게재결정일 : 2023. 04. 13.

The Effects of Planned Happenstance Skills on Life Satisfaction in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Adaptability and Occupational Engagement and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Job-Seeking Anxiety

Choi Jaehyuk

Charis psychological counseling center

Hong Hyeyoung

Myongji university, Profess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impact of the planned happenstance skills of college students on the life satisfaction on the career adaptation model, and to examine the mediated effects of career adaptability, occupational engagement job-seeking anxiety. For this purpose, the data of 343 people collected by conducting an online survey of 3rd and 4th year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was used for the final analysi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ouble mediating effect of career adaptability and occupational engage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lanned happenstance skill and life satisfaction, it was confirmed that i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 as a result of confirming the mediated moderating effect of the research model, the moderating effect of job-seeking anxiety on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adapta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lanned happenstance skills and life satisfaction of college students was that the interaction term between planned happenstance skills and job-seeking anxiety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t is meaningful in that it confirmed and revealed the importance of improvement of planned happenstance skills, career adaptability, and occupational agreement for college students' life satisfaction. Second, the possibility of the career adaptation model was confirmed. Through this, it is meaningful in that it revealed the need for career counseling intervention in accordance with the level of individual needs. Third, it is meaningful in that it confirmed the integrative aspect by applying the employment anxiety to the career adjustment model targeting the 3rd and 4th year university students who can perceive job-seeking anxiety relatively high.

Key words : college student, career adaptation model, planned happenstance skills, career adaptability, occupational engagement, life satisfaction, job-seeking anxiety